

목양칼럼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 때면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 때면 저는 애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저를 꼭 데려가 주십시오.
이 땅에 살아 있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난 목요일, 필라델피아에 사시는 이규성 원로장로님을 심방하였습니다.
공원 같은 집에서 아드님 가족과 함께 사시는장로님 내외분을 심방하여 예배드리고,
자리를 옮겨 준비하신 풍성한 식사를 마친 자리에서는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해방 후, 나이 어린 학생 때 5년을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신
이규성 장로님과 허경화 장로님의 이야기는 충격 이상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반동분자라고 폄박하는 공산당 때문에 평일은 물론
교회를 다녀온 다음 날이면 더욱 혼나고, 매 맞고, 자아비판을 강요당하셨다는
두 분의 이야기는 마음을 졸이게도 하였고 아프게도 하였습니다.
기독교인과 사귀는 자도 반동분자로 몰렸기 때문에
두 분과 사귀려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셨던 이규성 장로님은 그 어려운 시절,
서산(西山)에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 때면 이렇게 애절히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저를 꼭 데려가 주십시오.
이 땅에 살아 있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린 소년의 기도대로 그 때 데려가지 않으시고
산 넘어 월남(越南)케 하셨고, 물 건너 이민(移民)케 하시어
퀸즈장로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믿음의 초석(礎石)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다 서산에 떨어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용/EEP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중학과부 (646)789-1118	
직인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지휘 / 강혜영
반주 /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최미희



주후 2018년 6월 17일
제 44-24호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14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함용식 장로 3부 / 채영주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히브리서 12: 22-29	사회자
찬양 CHOIR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목자되신 주님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은혜를 받자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10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185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사회자

* 표는 일어섬

주후 2018년 6월 17일

주일예배 (2,4부)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남형욱 장로 4부 / 송동을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10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2부/ 히브리서 12: 22-29 4부/ 디모데후서 1: 6-14	사회자
찬양 CHOIR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은혜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2부 / 은혜를 받아 4부 /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김성국 목사 오인수 목사
* 찬송 HYMN	임재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새가족 환영회

6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 학교 졸업 예배

6/24(주) 오후 4:00 본당

권장 여름 성경 학교

주제: '아하 예수님' Shipwrecked Jesus rescues!
6/28(목)-30(토) 오전 9:30~오후 3:00

2018 전교인 여름 수련회

7/2(월) -7/4(수)

수요 기도 예배

오후 8:00 (6/20/18) 사회: 오인수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광고	사회자
성경봉독	사회자

빌립보서 4:4-9

찬양	찬양대
말씀	오인수 목사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찬송	413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교회소식

6월 성령의 달 -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6/24(주) 교회 학교 졸업 예배	6/27(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6/28(목)~30(토) 권장 여름성경학교	7/1(주) 선교회 월례회
7/2(월)~4(수) 전교인 여름 수련회	7/7(토) 단기 선교사 파송 예배

알림

1. 교회 학교 졸업 예배가 6/24(주) 오후 4:00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 2018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안내 1) 주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2) 일시: 7/2(월)-4(수) 3) 강사: 백정우 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담임) 4) 장소: Sheraton Parsippany Hotel * 수련회비: 1인당 \$170 (총 비용 \$340 중 교회에서 \$170을 보조합니다) - 6/24(주)까지 등록시 \$10 할인 * 여름 수련회 찬양 축제 신청 - 7/4(수) 오전 예배 후: 가족창, 악기 연주, 독주, 트리오 등 장르 불문. (푸짐한 참가상 있습니다)
3. 2018 여름 성경학교 안내 * 유치부~초등부: 6/28(목)-30(토), * 영아, 유아부: 6/30(토) * 주제: '아하 예수님' Shipwrecked Jesus Rescues! * 등록: 교회 웹사이트 혹은 각 부서 신청서
4. 7/1(주) QBC 전체 개강 특강 안내 *1) 강사: 소망 소사이더티 유분자 이사장 2) 장소: 지하 친교실 3) 시간: 오후 2:15~3:30
5. 6/23(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지역장, 구역장 (다음주: God's Will)
6. 가족기념 장학기금 윤정호 집사, 윤엔지 집사, 윤다운 어린이, 윤다해 어린이

새가족

배광미 (아론 2F3, 배귀자 - 한나)

소 천 심인보 집사(심경선 집사 1BK)의 부친 심재익 집사께서 6/1(금) 한국에서 소천받으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금식기도

주 / Jeff Pyo, Grace Moon, Dan Cho, Kiwi Jin, Shen De Guia, Hyunsu Jeong, Julie Bae
 월 / Ed Song, Grace Moon, Maggie Lee, Esther Park, Kiara De La Cruz, Kiwi Jin, Edmond Choi, Sarah Cho
 화 / Ed Song, Grace Moon, Kiara De La Cruz, Benita Choi, Kiwi Jin, Mary Cho, Jane choe, Tae Whang, Shen De Guia
 수 / Peter Jang, Grace Moon, Maggie Lee, Kiara De La Cruz, Kiwi Jin, Jen Whang, Mary Cho, Dave Kim, Pastor Peter
 목 / Ed Song, Grace Moon, Esther Park, Kiara De La Cruz, Kiwi Jin, Shen De Guia, Jane choe
 금 / Ed Song, Kiara De La Cruz, Ran You, Kiwi Jin, Sarah Cho
 토 / Jae Oh, Grace Moon, Jen Whang, Sarah Cho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310	러시아어 예배	48	영어부	34	중등부	57
2부 예배	387	청년 선교부	79	유아부	36	고등부	51
3부 예배	317	QBC	215	유치부	28	청년 대학부	39
4부 예배	142	새벽 예배	872	중국어 교육부	23	교회 학교 예배	417
영어 예배	191	수요 기도 예배	194	유년부	86	주일 낮 장년 예배	1789
중국어 예배	315	새가족 환영회	14	초등부	63	주일 낮 총회	2206

6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최원일 장로

헌신기도	장봉석 장로	황인섭 장로	황주현 장로	차상남 장로
책임권사	김홍덕 권사	남인화 권사	이경애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송현규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장현미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에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정사용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교포부 주일식사: 청장년부(다음주: 마리아)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TV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금주의 가정예배

2018년 6월 셋째 주

문답 46 문 : ‘하늘에 오르사’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오르셨으며 장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월- 사도신경 / 찬송가 286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3:4-7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릅니다. 보이는 표적만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와 달리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정말로 아십니다. 한번의 만남이지만,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곡을 찌르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 찬송가 453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3:8-12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0절)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나요? 그 분 안에서 우리에게 열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알고 계시나요? 이제 삶의 소망이 나만의 개인적인 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가슴으로 느끼시고 계시는가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때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가요? 늘 자신에게 물어보고 질문하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 찬송가 421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3:13-15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구원받을 방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뱀뱀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뱀뱀을 보면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

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뱀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이 기쁜 영생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삽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찬송가 305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3:16-18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가 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 심판의 대속물로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 찬송가 521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3:19-21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근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의 심판의 근거는 우리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신 심판 받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판의 근거는 우리가 죄인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활짝 열려 있으니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찬송가 80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요한복음 3:28-30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이 누렸던 인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은 그들이 잊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 3:30)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닌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흥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시니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사는 삶을 삽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